

교회 목표

신성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4 충헌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장권 편집인: 노정환 편집: 이태복

2004년도 제3차 정기기운례 메시지

믿음의 승리 (마 15:21-28)

지치신 몸을 이끌고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예수님



우리는 영혼의 소중함과 그리스도의 사랑, 곧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가? 한 영혼을 위하여 온 지구를 돌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돌면서 한 영혼의 회개를 촉구하는 삶이 나의 가슴에 있는가? 예수님처럼 두로와 시돈의 자를 찾아서 들끓이나 계속이나 절박까지 찾아가자. 가서 그들을 평화의 집으로 데려오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놀라운 신앙을 가진 여인이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마 7:26).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한다. “주 님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마 15:22b).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로 요구할 수 있는 용기를 냈던 것일까? 그녀는 유대인으로 아예 없고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었다(마 15:24). 가난한 여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족속의 자손이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리스도에게로 왔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한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종을 찾으시곤 한다. 가장 진한 핍박자 사울을 찾아내어 자신의 사도로 삼으시지 않았던가(행 9:1,25).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던 행재가 주님이 부르시는 온나팔 소리에 마음을 열고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부르짖기를 바란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놀라운 믿음

그녀는 일반적인 질병의 치료를 부탁하지 않았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것을 구하였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22절). 엄청난 시련과 폭풍 속으로 주님을 끌어들이고 있다. “바가 내 딸을 불쌍히 여기라. 오직 예수님이 내어 놓을 수 있네다. 모두 머리를 떨켜 나이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시 뿐이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23절). 모든 제자들도 이 여인을 둘러보려 한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려고 하는데 주님도 제자들도 여러분을 거절한다.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는가? 그러나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다. 돌아서지도 않았다. “다윗의 자손이 숨어 있더냐? 그분은 숨을 수 없어요. 나를 위해 오셨습니까? 그분이 온종일 영광은 온 세상을 비추고 있어요. 그분에게 직접 대화를 나누렵니다.” 그녀는 문 안에서 들리길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네다.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도 없네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악마가 내 딸을 붙여 간절 속도 있네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이 이방 여인의 놀라운 믿음! 자존심도 인격도 예절도 포기하고서 주님의 발 앞에 경배하며 기쁨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예수님을 여전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예수는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나”(마 15:23b). 슬픈 자들에게 항상 대답하시는 예수님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일이 곧은 모습이다.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리스도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다. 한 마디 말씀으로 그녀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이였다. 그러나 자치하고 병장한 침묵만이 방 안에 가득 가득했다. 그러나 그녀는 굳히지 않았다. 그녀의 한 가지 믿음은 포기할 수 없도록 영혼을 방정한다. 기도에 실패한 형제들이 있는가? 난관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의 끈을

늦추지 말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의 보혈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라. 끝까지 울고 바라보라. 다른 문은 없으니 그 문만 두드려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 하나뿐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멸망을 얻으리라”(요 10:9).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제는 제자들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다. 그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간청한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23절).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기도를 포기한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다. 온 교회가 기도를 중단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계속하라. 큰 기도의 소리가 중단 되었으나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신다. 지칠 대로 지쳐서 기도하느라 졸았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드디어 주님은 입을 여신다. 그녀를 향해 말씀하신다. 아, 그러나 책망의 말씀이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24절). 냉정하게 들렸을 말씀이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기뻐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마 15:25). 그리스도와의 대화이다. 생명권에 관한 대화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한 믿음의 웅숭음이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요 13:20).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은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녀의 믿음을 통하여 잠을 열고 있었다. 주님은 기뻐하셨다. ‘믿음이 없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오늘날 다윗의 자손을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열게 한다.

믿음의 승리

마지막까지 무릎을 꿇고 간청한 이 여인! 그러나 주님은 갈수록 기뻐한 대답만을 주신다. “자녀의 땅을 위하여 개들에게 단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마 15:23). 너무나 기뻐한 인사였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 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마 15:27). 예수님이 그녀를 ‘개’라고 부른 후에 그녀는 그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라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개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게 하여 주세요, 당신의 개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사탄의 귀여운 자식보다는 그것이 행복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소망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는가? 가난한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어보라.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요 3:16). 그리고 금과나 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세상이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오, 복된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믿음!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오라. 믿음으로 간구해도 안 된다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는가? “수고하고 부끄러워 잠진 자들이 다 내로로 오라 내가 너희를 생사 하리라”(마 11:28). 대답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마 15:28). 오, 축복받은 영혼아! 믿음의 승리!

“요즘 전도하고 계십니까?”

무디(D. L. Moody)라는 전도자는 하루에 한번은 반드시 전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살았었다. 우리에게도 우리 각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다른 열매를 맺는 영혼을 잃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천하는 삶! “나는 믿음을 전파하며 마음을 얻고자 하니 열심 힘써 복사와 오매 침묵과 기쁨으로 경배하며 경배하며 권하라”(딤후 4:2). 2005년도 단기선교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우리 교회는 사제/목회자를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사제/목회자를 세우고 성서학도 만들고 요 24주전 매주 한 번씩 사제/목회자를 떠돌기 위해서 사제/목회자의 편도 교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제/목회자들이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는 7번이 이렇게 잘 마련되고 있으니 우리 모두 열매를 전도의 사명을 미리미리 나누어 놓고 2005년도에는 선교문화에 집중할 수 있겠음 좋겠습니다.

CONSECRATION

“(23)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24)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5)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26)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1 Corinthians 11:23-26)

You cannot commemorate Christ as your Savior without acknowledging yourself as His. The purchase of His blood draws you into heavenly life, and devotes you to His service. Part of the Lord’s life and service include partaking of His Supper. The very nature of the Lord’s Supper claims your heart now, and commands consecration henceforth. As such, the invitation to His Table is strictly for believers, not unbelievers. Dead people must not sit down at the table of the living God. For at this table God and man interact through Jesus Christ and the Holy Spirit. Such a sacred experience cannot withstand any falsity.

Partaking in the Lord’s Supper is a command to all believers.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v. 24).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v. 25). He explained,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v. 26). Only believers relate with the Lord’s death because only believers, new creatures,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His blood and body can only consecrate those with faith. When Thomas, the doubter, finally recognized the full deity of Jesus Christ, he said, “My Lord and my God”(Jn. 20:28)! Indeed, partaking of the Lord’s Supper requires a clear, pure, and sincere understanding of Jesus Christ. His command is an evangelical blessing and privilege that all believers need to obey.

Partaking in the Lord’s Supper refreshes a believer’s faith. An old hymn comes to mind that says, “There is a green hill far away, Without a city wall, Where the dear Lord was crucified, Who died to save us all. Oh dearly, dearly has He loved, And we must love Him too, And trust in His redeeming blood, And try His works to do. We may not know, we cannot tell, What pains He had to bear; But we

believe it was for us, He hung and suffered there. There was no other good enough, To bear the price of sin; He only could unlock the gate, Of heaven and let us in. Amen.” This is the wonderful understanding love that this huge church should know and show. The world looks at this church to see what we are doing. Right now there are unbelievers in our midst listening and watching. We must come to the Lord’s Table wholeheartedly, so that the Lord’s consecration transforms us to shine on all around. Truly, our faith requires such refreshing.

Partaking in the Lord’s Supper is an inescapable corporate experience. We cannot deny or ignore it because God’s word commands it, and our faith is purely devoted to the Lord. We need the strengthening that comes from conforming to His will. The Lord’s Supper is one of our church’s most serious forms of worship. It is a deep confession that represents the climax of God’s mercy. The cross itself shows God’s amazing love, and the Lord’s Supper reveals His continued care for our present and future. God gives eternal life only to believers. Their eternal security comes through their consecration to the Lord. At the Lord’s Table, we have the most wonderful fellowship with the Lord, and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It is a wondrous church celebration.

Jesus said,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ot hunger, and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thirst”(Jn. 6:35). As we take the bread and cup today, we will proclaim Christ’s death by remembering the cross, and His soon coming return. We will also confess and repent of our sins, and give thanks for His unending love. As believers, we cannot avoid this sacred meal, for we need to join in union with the Trinity and each other. We need the strength and power that the Lord’s Supper provides, so that we can be ready to proclaim the Gospel to unbelievers. Come now, Let us join this wonderful table with sincerity, so that the Lord will consecrate our hearts and refresh our faith for His glory. 

헌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3-26)



김성관 목사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요구하는 성찬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기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의 생명을 누리실 것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주의 만찬은 그 특성상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요구하며, 이후로는 여러분의 헌신을 명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은 오직 신자들뿐입니다. 불신자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식탁에 절대 앉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식탁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서로 교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거룩한 일에 조그마한 거짓이라도 섞이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할 성찬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내려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올리신 후에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24절). 식후에 또한 같은 방식으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25절).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26절). 주님의 죽으심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신자들뿐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인 신자들만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몸은 믿는 자들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확인한 후에 말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 20:28)! 정말 그렇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순순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신자들이 순종해야 할 복음적인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믿음에 새로운 힘을 주는 성찬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신자들의 믿음은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오래된 찬송이 있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네 그 귀한 주

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해 힘쓰리 그 흠린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다 당한 것일세 그 흠린 보배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찬송가 146장).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요!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을 알고 보며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세상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에 전심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삶과 피가 우리를 변화시켜 온 세상의 빛으로 만드시도록 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새로워질 필요가 꼭 있습니다.

교회의 놀라운 축제인 성찬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것을 명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만찬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 교회의 가장 엄숙한 예배 형식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자비의 최고 절정을 표현하는 깊은 신앙고백입니다. 십자가 자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주의 만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끊임없이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신자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신자들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영원한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주의 만찬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가장 아름다운 교제를 나눕니다. 참으로 놀라운 교회 축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b). 오늘 이 자리에서 떡과 잔을 받으며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식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형제들과 더불어 연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이 공급해주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이 놀라운 만찬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

달고 모요한 그 말씀 (10월 22일 금요철 메시지 요약)

자기를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아들 (눅 23:34)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데 열심으로 참여한 사람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유대인들이었으며 성경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직접 듣고 체험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마치 원수를 처형하듯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데 일장했다. 그런 그들을 위해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다. 평생 메시지를 고해하던 사람들, 메시지가 베풀려했던 날 그들 알았던 사람들이 무엇을 몰랐단 말인가? 성경에서 우리는 몇 가지 대답을 찾아볼 수 있다.

1. **예언이 이루어짐을 몰랐다** - 메시지에 관한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은 몰랐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 통과 노를 부르짖었다(눅 22:63, 68), 사람들이 메시지에 쓸개를 먹이고 초를 마시우는 일(사 50:7), 세상의 권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파하여 메시지를 대적하는 일(사 22:2), 락 짚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치기 홀로 노를 받아들이는 메시야사 50:6, 63),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은 메시야(막 14:50), 메시야의 뼈가 해로로 켜지지는 일(사 53:12) 등의 예언이 모두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한 것이다. 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

2.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 지심을 몰랐다** -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 힘 없이 앉아서 죽는 것으로만 생각하였다. 그분이 영광의 주님이심을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고전 2:8). 세상의 명예, 권세, 영광을 좇았던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세상의 눈에는 흠모받았던 것이 하나도 없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른 손으로 높이시.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사(골 3:1, 3:30). 그는 하늘로 솟아 이 땅에 나신 분이요(고전 15:47). 장대에는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실 것이다(살전 4:16-18).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영광을 아는가?

3.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는 줄을 몰랐다** -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아들을 생애에 보전하신 줄을 믿고 3:16, 17)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들은 몰랐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참 선물이었단 그들은 이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따라 갔던 것이다(골 6:23, 고후 8:9). 교만이 가득 찬 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분간할 수가 없었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간혹자들의 버린 줄도 모으시는 머릿돌을 삼으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골 2:12, 행 4:12).

4. **사탄에게 이용되는 줄을 몰랐다** - 온 삼십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 그에게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심어준 것은 사탄이었다(요 13:2). 그리스도와 다른 목적을 품고 회개도 없이 고백만 가득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그의 모든 것을 사로잡았던 것이다(요 13:27). 제자들 역시 기도할 시간에 잠을 자고 재물을 피웠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용을 당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막 14:41). 일반 백성들 역시 사탄에게 이용을 당해서 의인 을 잡아 찬조 살인한 자가 되었다(행 7:52, 10:39). 그들 나름대로 교회를 공격하여 나라를 생각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실상은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요 결국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것이다.

5. **그들은 이 착한 일이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인 줄 몰랐다** -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이었다(사 53:10). 그리스도는 이미 작정된 대로 하나님의 향신 뜻과 아버지의 뜻대로 내리니 바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골 2:22, 행 2:23). 예수님도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지만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셨다."(요 19:11).

6. **사탄을 깨는 줄을 몰랐다** -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라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다.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이 되게 하리니"(창 3:15).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었다(요일 3:8). 그리스도는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드려사니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골 2:15).

7.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우주의 왕인 줄을 몰랐다** - 아방강 언덕의 빌라도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음을 알았다. 그래서 십자가에 붙일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하였다(요 19:19, 20). 천지조물 이사이는 예수님의 탄생 몇 백년 전부터 예언하기를, 예수님이 그에게 정사를 맺었고 그 이름은 기묘하고 묘사며, 정사와 평강의 이름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라고 말하였었다(사 9:6, 7). 밧모섬의 사도 요한 역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 이라고 증거하였었다(계 17:14, 19:16). 그러나 유대인들은 인간의 지혜는 물론만 그리스도를 버리고 했기 때문에 그를 몰라보았던 것이다.

일찍이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고로 오해하였도다"(마 22:29). 성경을 읽어놓으도,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직접 보지도, 자기 욕심으로 마음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알지 못하고 말씀도 자기 멋대로 왜곡하였던 것이다. 아,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라. 모든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보아라. 주님께는 이 일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니(요일 3:24).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리라"(요일 4:13).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알게, 정결 진실하게 그분을 알자. 아멘!

수요1부 예배 메시지

이로운 길
(잠 12:28)

"이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람이 없나니라." 짧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다. 생명이 있는 이로운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믿음을 점검해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에 보좌하셨으니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창 3:16). 온 세상이 마르다 나이가 할 이로운 길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제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렘 2:19). 우리는 생명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혹시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복되하며 잘 다니는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사망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가? 이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 앞에는 다름 내 가지 길이 놓여 있다.

변화시킨 길 - 이로운 길에는 변화시킨 길이 있다. 사울을 보라. 이로운 길을 걷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잔인하게 학박하던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신대를 돌러 쳐 죽일 때 그 일을 옹호 증거하던 사람이었었다(행 8:1).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주셨고 사람의 욕심으로 그의 마음을 녹여주셨다. '대단히도 주님 부시도나니'라 가라사대 나는 내가 변화하는 예수라'(행 9:5). 드디어 그리스도와 대화가 시작되었다. 사울은 가슴을 치고 눈물로 회개하며 사울을 전하여 그 자신의 고만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하여 주님은 교만한 자를 자기 겸손한 자로, 말박자를 진도파와 소교자로 변화시켜 놓으셨다(갈 12:24). 완전한 변화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을 나를 사함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란다. 주님은 여러분이 변화된 길을 걷기 원하신다. 지금 여러분은 변화시킨 길을 걷고 있는가?

교제의 길 - 변화시킨 길은 곧 사람의 교제의 길로 간게 된다. 영아모로 내려가던 두 명의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서로 알았다. 그러나 주님의 살이 있는 교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단순히 그곳에서 돌아왔던 인간적인 일을 자들이 아는 대로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께서는 이런 그들을 찾아가서서 말씀을 친히 들려주셨다(눅 24:32). 지금도 우리는 주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배우는 주님, 우리 모두 마음 문을 열어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와 교제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부 가운데 갇힌 것 같이 부 가운데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제하게 된다(요일 17). 그리고 이들은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는데, 그 교제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이다. "...우리의 사랑은 아버지와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요일 13).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미쁘시니(고전 1:3).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제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나(골 2:19). 참으로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

사역의 길 - 주님과 더불어 교제의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의 열매를 따라서 사역의 길도 걷게 된다. 주님을 보라. 그리고 성을 자나 예루살렘으로의 열매가 사역에서 한 순도도 쉬지 않고 영혼 구원을 행하셨다. 그리고 성 안에서는 사각으로 구원을 구원하여 주셨고(골 1:9). 그리고 주님께서 사역을 사셨다. 성경 말씀을 구원하여 주셨다(골 1:9). 구원을 받은 사도들은 주님의 뒤를 그대로 따랐다. 바나바를 보라. 그는 고전을 면치 못하여 주님을 바나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대 대장이 되었다(행 14:23). 변화시킨 길과 교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들 자체가 찬양대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이 사역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 이 길은 고되고 험하지만 영원한 상급이 있는 길이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전한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가 행한 중에 기록한 것이 그 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3:40)이다.

관단의 길 - 이로운 길은 관단의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 주님 자신도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 그 후애가 영광을 드러내셨다(골 1:26, 24:28). 또한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 역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당할 수 밖에 없도록 관단을 걸으셨다(골 1:28). 사도들 역시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도 고난의 길이 있음을 자각 강요하셨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편박을 받으리라(딤후 3:2). 사도들은 비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민들의 찌꺼기처럼 거칠고 험악한 대접을 받았다고(고전 4:1).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나(골 3:7). 애틍을 믿으면 교제하게 되고 인간을 믿고 이 세상에서 찬찬을 받다가 병들어 죽어갈 것 같고 그러다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는 좋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도 좋은가? 아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수박이 없다. 그러므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이제 이 말씀에 부추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자세히 살펴보자. 변화시킨 길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리스도와 교제의 길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사역의 길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고난의 길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우리는 오늘도 이로운 길을 걷고 있다. 우리 앞에는 오직 두 가지 길이 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로 걷고 있는가? 생명의 길로, 이로운 길로 나아가라.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행하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간단 전하여 사망의 길을 고집하려는가? 돌이키라. 속히 돌이키라.

그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팀이 간 선교지는 복음을 전하기 쉬운 나라가 아니었다. 우리들은 선교 준비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정보에 익숙해 있었다. 그 곳은 눈에 띄게 선교하면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 그래서 한탄 불참한 반응을 치루고 나아가 겨우 풀려나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사역기간 내내 운전기사와 통역은 우리 팀을 불안하게 했다. 관광객만을 상대하며 영업을 해왔던 그들은 우리 팀도 관광객으로 생각하며 우호적으로 대해 주었으나 그 모두는 부수입을 얻기 위한 영업 전략일 뿐이었다. 그러나 우리 팀은 복음의 파수꾼이기에 때때로 그들이 우리의 목적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도와주길 바라며 그들에게 진심해야 했다.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사회주의의 현실에 대해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했다. 표정이 없는 사람들, 생동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목표와 소망이 없는 사회주의에 억압당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에 우리들의 외모는 너무 화려했다. 현대문명에 익숙한 우리들은 가난하고 낙후된 세계의 그곳 사람들과 대화될 수 없는 거리감이 있었다.

이 나라의 어떤 마을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집단으로 끌려가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 갔던 도성 외곽지역의 어떤 농촌 마을에는 이미 복음의 씨가 뿌려져 있었다. 구석에 교회도 있었고 신자들도 있었다. 그곳의 신자들은 사회주의의 박해 속에서도 굳센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받는 괴로움과 고통과 불편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장차 받게 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의 고난을 마땅하게 여기며 감수하고 있었다. 지금도 그때 만났던 어떤 할머니를 잊을 수 없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인가?”

ऐ리한 눈빛으로 우리들을 번갈아보며 쳐다보시는 그 할머니는 우리를 만기보다 우리들의 신앙이 참된 것인가를 의심하고 있는 듯 했다. 그녀는 곧바로 우리 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다.

“주님, 저는 저 사람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인지 판단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 기도는 나의 외면에 잔잔한 충격을 주었다. 나는 그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했다. 주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내세우며 우월감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해주신 것이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으로 전하고 있었지만 그곳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인격체로 믿으며 참된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다. 그에 비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비교가 되지 않음을 느꼈다. 오늘날 우리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거나 손해가 있으면 당장 불평불만을 터뜨리는데, 그곳 사람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후 사역은 점차 활기를 띄게 되었고 운전기사와 통역과의 관계도 원만해졌다. 특히 운전기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우리와 약속을 했다. 먼 곳에서 자기 나라에 중요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 와 준 것에 대해 감동했다 우리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다. 기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주님께 감사한다. 그에게 주님의 축복이 내려지기를.

김연정(집사, 5교구)

성령님과 교제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떠나기 전, 내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다. 나의 부족함을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 몰라도 과연 내마 선포를 잘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우려들로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신도 준비모임을 하고 양육을 받으며 선교지에 오게 된 과정 하나하나를 통하여 내 삶에 살아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나의 영혼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은 그동안 나의 죄 때문에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알려주셨고 조금씩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주셨으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주셨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영혼들과의 만남이 귀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소년이 있다.

어린이사역을 마치고 다른 사역지를 향해 가고 있는 도중,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한 소년을 붙잡고 말을 걸었다. 잘 알아듣기 어려웠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웃는 얼굴로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며 어떻게 해서라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영혼을 보면서 지쳐있던 내 몸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했다. 함께 전도지를 잃어 내려간 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 소년과 당신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되돌아보면 언뜻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라고 설명해줄 수 없음을 참으로 안타까웠다. 그러한 중 통역해주시는 형제님들까지 우리 쪽으로 다가오셨다. 통역하시는 분이 내가 그 소년을 사랑하는 이유를 다 설명하기도 전에 그 소년이 나에게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성령님의 행하심으로 소년의 마음에 감동이 느껴졌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셨다.

나는 내 자신이 성령의 제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고민을 갖고 있었고 선포를 준비하면서, 이번 사역을 통하여 내 자신이 변화하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갖길 소망하는 기도를 계속하셨다. 아직도 내 안에는 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다 고백하지 못한 의심과 걱정, 의문들이 있지만 단 한 가지 명확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 나의 죄상 때문에 내가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였던 것 뿐이지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발걸음을 옮기시며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이다.

나의 삶에 터전해 다시 돌아가시기도 이토록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마지막 지상 명령에 따라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은 물론,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힘쓰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겠다.



최두루(대학부)

★ 이번주에 출판되는 선교침

기간	팀	팀장
11월 29일(화)~11월 10일(수)	7교구 8지역	이인경

“도합 우리들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정도를 문들 우리에게 열려 주사
그리스도의 비림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 4:3)

길지 않은 7박 8일의 시간이 주어진데 때 여러 가지로 힘들 쓰며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전에 자기 선교를 다녔었던 경험들을 되살려 몇 가지 사역들을 더 준비하여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용돈과 어떤 보람을 갖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다녔었던 단기선교를 통해서 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셨음을 고백했으면서도 그게 있어버리고 또 다시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야만 되겠다고 했습니다. 출국시간도 새벽이 아니라 저녁이기에 때문에 현지에도 도착해서 잠 풀고 바로 잠자리에 들면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은 정탐하느라 본격적인 사역도 시작 못 할 것만 같아 생각했습니다. 짧은 일정과 내가 가졌던 열심이 딱딱 맞지 않는 상황에도 좌절이 나고 조금은 불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역 첫날 일어난 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런 고백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곳에서 경찰서로 불려가는 만연의 사태도 과거의 경험으로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 두 시간 만에 모든 팀원들이 공간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12시간에 걸친 구류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사역의 길이 단 두 시간 만에 마쳐버리는 사실에 너무 막막했습니다. 준비했던 찬양송이와 전도지와 성경을 압수당했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임의로, 그 부로심을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자비를 의지하며 순종하기를 한다면 되는 것을 알고 또 제가 주님보다 앞서거나 조바심을 내고 조들감을 떨며 괴로웠던 것입니다. 사역을 하지 못하고 불참해 있던 시간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아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러하면 전제가 어이성 전투에 있어 패한 말음을 주셨습니다. 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의 일하심

복음으로 침묵되어야 할 그곳을 더 강하게 하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저의 무릎을 꿇리시오 회개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팀은 그 도시에서의 활동이 금지되어 사역지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옮긴 사역지는 모스크가 400개가 있고 과학한 무슬림이 많아 현지 교파나 교인들도 직접적인 전도방법이 아닌 간접적인 전도방법을 취할 정도로 복음 전파가 힘든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역지 정탐을 마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속으로 돌아오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의 일이나 나의 일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전교를 나서며 가졌던”

주님의 말씀은 끝없이 나의 경험과 지혜로 나의 일을 하라는 저를 놀렸던 답답함과 두려움으로부터 가볍게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우려와 나의 걱정과는 달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젊은 청년들을 만나 주님을 전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들이 주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겨우 할 수 있었던 수많은 고백들을 언제 다시 자녀로 모를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선교를 나서며 가졌던 부담감과 나를 위한 열심들이 얼마나 손에 만지처럼 가볍고 하찮은 것들이었는지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알게 하신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오로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맡게 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민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김현(청년1부)

선생님께

제가 감사했던 사람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면 저는 선생님께 쓸 거예요. 선생님, 저에게 올해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가기 시작한 것은 친구의 권유였지만, 항상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아침마다 저를 데려다주시는 선생님께 정말 감사해서 자주 교회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데 정말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토요일마다 저의 학교에 오셔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것을 보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도 선생님께서 열심에 전해주실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들어요. 앞으로라도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할게요. 저의 작은 소망이자 기도의 내용은 앞으로 저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제가 나중에 커서 저의 꿈인 선생님 되는 거예요.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게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강인주(중등2부)

친구 해연이에게

안녕! 항상 같이 다니는데 편지로 인사를 하게 되니 많이 어색하다. 매일 잔나치고 괴롭이지만 항상 너에게 고맙게 생각해. 내가 교회에 다니기 싫어서 안 다니면 날 재촉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교회에 다니기 고맙게 때 적극적으로 네가 도와주었기에 애잔하고 달리 열심히 교회를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 고맙워! 아아, 네 도움이 아니었다면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노잣만 자고 있었을 거야. 네가 인도해준 덕분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고, 너와 좀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좀 더 부지런해 질 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한 번은 피곤해서 교회에 가기 싫었을 때 꼭 나오라고 해서 고맙게 있었어. 그렇지 않았다면 또 예전처럼 계속 교회에 나가지 않았을 지도 몰라.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못 나갔을 거야. 정말 고맙워. 너와 함께 있으면 항상 즐거운 것 같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항상 좋은 친구가 되도록 기도하자.



윤여림(중등2부)

교회선생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은서예요. 우선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커서는 그냥 엄마와 함께 어울리는 등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2학년이 되어서 친구 소외 때문에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는 등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2학년이 되어서 친구 소외 때문에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는 등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2학년이 되어서 친구 소외 때문에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는 등 있었어요.



김은서(중등2부)

우리의 친구 예수님

유년부에서는 주일에 선생님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받는 벌을 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고성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것 같다.

이런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경공부도 하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성경암송대회도 한다.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보고 기도롭게 예수님과 대화 할 때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 같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까 같은 우리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이태연(유년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 10:13).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할 때, 또 주님이 아닌 세상에 대한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서 슬프고 힘이 들 때 주님은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듯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에 안식처를 마련해 주신다. 참 평안을 주신다.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이치로만 악하고 악한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심을 알게 하신다.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기쁘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다가 또다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은 채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또 다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감사함을 잊고 저 내나 자신을 발견한다. 나는 너무나 약하고 이기적인 존재이다. 내가 저를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은 생각하지 않고 나의 뜻만 앞세우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붙잡고 매달린다. '하나님 저같은 이께 필요합니다.' 나의 기도는 이렇게 단순해진다. 주님께 헌신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난 이렇게 못해. 아니 안해. 난 지금 누구보다 힘들고 내 할 일만으로도 바쁘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죄인임을 알면서도 용서해 주시기에,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더욱 크게 내려 주실 은혜를 믿기에 언젠가는 이런 좌절과 고난의 시간들이 나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킬 것을 믿고 주님을 향해 작은 날개를 퍼덕이며 다가가겠다.

항상 기도하며 말씀에 깨어있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너무 나약하고 약해서 다시 주님을 잊고 자신의 의를 내세워 세상 속에 빠짐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나의 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함을 잊지 않고 머리로는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내가 되고 싶다.



김예소(고등부)

주님의 빛사루



지난 10월 9일, 한글날인 토요일에는 특별하게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화창한 날씨와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만끽하며 대학부 회원들은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해주신 맛있는 점심을 먹고 든든한 기분으로 제2교육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각 팀별로 나누어 구역을 쏘고 닦으며 지체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 그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에 서로서로 앞장섰습니다. 4층으로 나누어진 제2교육관은 벽과 바닥, 창문까지 대학부 회원들의 손길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청소하고 쓰레

기를 치우면서 평소에도 이렇게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의 수고와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회원은 "더 깨끗하고 소중하게 성전을 사용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하겠습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청소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서 일찍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학부 회원들은 서로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이런 모임을 자주 갖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더욱 더 사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또한 많은 지체들이 평소에도 말씀과 기도하 힘쓰는 믿음을 품으로 행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가 속한 곳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된 자들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대학부 회원들의 즐거움 제2교육관 청소였습니다.

변영진(대학부)

교회탐방 39 중현어린이집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와 계셨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초유이 우리 교회 교당에 오셨다. 그때, 가장 먼저 뛰어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고전과 필견에 사로잡힌 어른들이 과연 저 분이 예수님이까? 하는 의심을 품는 사이 아이들은 이미 주님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이들이 바로 중현의 어린이들이다. 성도들이 쉬고 있는 날에도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 주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중현어린이집을 조망해 본다.

중현어린이집은 1990년 9월 1일에 개원했습니다. 맞벌이 액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자녀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양육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자녀들이 함께 교육을 받지만 안 믿는 아이들도 나중에는 믿음을 갖게 되고 나아가 부모를 전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육 과정은 교육부 지정과정과 영적 생활영역(찬양, 성경암송, 기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할만한 것은 장애아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일정시간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보다 더 약한 이를 돕고 배려하는 사랑을 배웁니다.

어린이집은 여성부에 소속되어 어린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질이 훌륭한 교사들이 최고의 시설에서 알찬 운영을 하는 중현어린이집에 들어오려면 일단 신장을 해 놓고 상당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4세부터 7세까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차 람은 없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영희 회장)

선생님들은 이렇게 노력합니다.

교사를 맡수록 어려움을 느낍니다. 인내를 갖은 교사가 되어 사랑과 마음을 전할 때 려고 애 씁니다. (방영주)

아이들의 영적인 면의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제가 쓰는 어휘가 영적 어휘가 되도록 어휘선정에 특별히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안



믿는 어린이들도 또래활동 중 미술비에 젖듯이 자연 스럽게 전도가 되도록 유도합니다. (윤지현)

저는 초임입니다. 아이들과 있는 것이 정말 행복 합니다. 악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재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우선 아이들을 잘 파악해 서 먼저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소연)

이래서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들이 저를 위해 늘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를 거름으로 제가 교사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김경희)

제가 어린이집 교사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 고 생각합니다. 의류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후에도 결국은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사역이며 제 의지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통해 제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들을 보고 영적 도전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기도 를 해 준다는 사실이 늘 감동입니다. (장소영)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긍지를 느낄 때, 정말 감사합니다. (윤지현)

아이들이 제게 마음을 털어 놓고 다가가고, 이전과 다른 변화 된 모습을 보는 것이 큰 보람입니다. (방영주)

선생님들의 소망은?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이기적인 아이들이 되지 말고 남을 배려하는 아이들이 되 어서 공동체를 위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김경희)

정착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을 때, 믿음의 결실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조영희)

무엇보다 하나님 뜻에 맞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김소연)

선생님들은 모두 머리를 아픈다는 긴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긴 머리를 좋아 하기 때문이란. 또 고운 옷을 입는 이유도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란.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예쁜 이유는 아이들의 마음을 달아서이다. 선생님들은 취재를 하는 동안 자주 감사의 눈물을 씻으며 취재에 용해 주셨다. 그 눈물은 순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순수한 아이들을 닮았다.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와 계셨다. (편집실)



△ 부모와 교사가 함께 쓰는 생활일지

다음 주일 찬송

283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다음 주일 찬송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있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 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라는 말씀을 배경 으로 작사되었다.

작곡자 프레드릭 쿡 애트킨슨(F. C. Atkinson, 1841-1897)은 영국 놀워치에서 태어나 놀워치 대성당 소년 성가대원이 되었고 후에 오르가니스트 요, 지휘자였던 리카리아 박사의 조수가 되었다. 1867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음악사 학위를 받고 브래드포드 매닝햄(Manningham)의 성 누 가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있었다. 또한 그는 성가대 지휘자로서 예전 음악, 안배 찬송가 등의 작곡에 크게 기여했다.

"죄인된 몸으로 감히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없으나 주님의 공로를 의지 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내게 없지만 주님 나를 용납하 여 주소서. 지금 이시간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오니 내 맘속에 그리스도께 서 들어오셔서 주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한 주간 동안 형식과 의식을 버리고 진실한 기도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성찬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자.

(전일위협회)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723	이신동	10	청년2부	위건량(1)	2740	방세훈	19	대학부	송지훈(18)
2724	김효진	19	청년2부		2741	창현정	18	청년1부	이학자(18)
2725	노정선	1	장년1부	김준희(1)	2742	김이랑	19	대학부	최두루(15)
2726	장진옥	9	장년1부	정연희(1)	2743	민예진	19	중등2부	이용현(18)
2727	이한주	2	청년2부	박효지(2)	2744	박수환	19	중등2부	이용현(18)
2728	강민진	19	중등2부	강영희(12)	2745	이태연	19	중등2부	이용현(18)
2729	김은진	19	중등2부	정경운(8)	2746	이승연	19	중등2부	변경실(18)
2730	윤여현	19	중등2부	윤병식(7)	2747	조은영	19	청년1부	정상형(12)
2731	구영평	19	청년2부	김진국(1)	2748	임희수	9	장년1부	최영옥(18)
2732	조재원	19	중등2부	강임구(1)	2749	서정안	15	장년2부	최영옥(18)
2733	황영자	12	장년2부	서화자(18)	2750	정순옥	14	장년2부	최영옥(18)
2734	유형준	19	고등부		2751	타오	19	외선부	김석영(7)
2735	윤지희	19	청년1부	전은희(1)	2752	김창환	10	청년1부	김미정(11)
2736	석재연	19	청년2부	최준호(13)	2753	조항식	19	청년1부	하종철(1)
2737	김정희	10	청년2부	홍순애(1)	2754	차동환	18	장년1부	김효정(18)
2738	조신영	9	청년2부	노정자(1)	2755	박후남	9	청년2부	오정수(3)
2739	이봉기	18	청년2부	하한나(18)	2756	김윤민	19	대학부	이우주(194)

* 중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 전체 릴레이
일시: 오늘 15:00
장소: 감리회홀

발세

1. 전동현 성도 김용하 집사의 아들, 전비
숙 집사의 부친, 4교구 방배5구역/정
제 성도의 장남, 전혜수 성도의 부친, 4교
구 반포구역/19일 별세, 19일 장례
2. 김삼균 성도 이부남 집사의 아들, 문삼
진 성도의 남편, 4교구 신동구역/19일
별세, 20일 장례

결혼

1. 함형식 군 (함흥식 안수집사, 김영민 권
사의 아들, 4교구)와 박팔림 양 (박종현
씨, 황순림 씨의 딸, 19교구) / 11월 4일
(목) 13:00 감리회홀
2. 최진철 군 (최찬규 집사, 전영은 집사의
아들, 타곡교회)와 박지현 양 (박상성 집사,
이향진 집사의 딸, 4교구) / 11월 6일(토)
12:00 교동교회새당홀 3층 1관
3. 김택호 군 (4교구 관현구역)과 서지혜
양 (4교구 방배3구역) / 11월 6일(토)
12:30 서초교회홀 2층 부부홀 ☎ 553-

5000

4. 임영호 군 (임성모 성도, 오기남 집사의
아들, 15교구)와 박진희 양 (박종은 성도,
김민희 성도의 딸, 타곡교회) / 11월 6일
(토) 14:00 서초오로프라자 1층 다마온
드룸
5. 심소호 군 (삼공직 성도, 정경희 권사의
아들, 14교구)와 김진희 양 (김팔기 성도
의 딸, 타곡교회) / 11월 6일(토) 15:00 남부
타이밍 국제센터 문화관 13층 ☎
3465-0011-3
6. 마정환 군 (이창하 집사의 아들, 14교구)
와 박정양 양 (박수영 씨의 딸) / 11월 6일
(토) 16:30 강동교회문화센터 3층 에메랄
드룸(강동역 3번 출구) ☎ 477-7700

◆사진촬영 안내

이제 새로 입직 받으신 제36대 정로(4명), 제7대 안수집사(50명), 제
45대 권사(61명)님들의 제2 사진촬영을 합니다. 오늘(10월 31일) 오후 1
시부터 4시까지 신부대신(감리회)을 뒷편로 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집회 찬양곡 모음' 제작

'금요집회 찬양곡 모음'이 테이프와 CD로 제작되어 사무국에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찬양곡 모음은 금요집회 설교 중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부
른 찬양곡들을 모은 것입니다. 위임목사님의 간증이 담긴 교백의 찬양곡
을 생생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이 찬양곡들의 내용
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감사가 충현의 모든 성도를 거둔대 해 차고 넘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주일 및 수요일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정로)					수요일예배	
		I	II	III	IV	V	I	II
11	7	이 훈	이형수	원용철	이달옥	김단용	김철환	한동열
	14	김구형	황의만	최은덕	장철환	함정철	송두섭	변금순
	21	김광남	이태식	이계인	윤석빈	차진식	유상태	김숙자
	28	임무전	권병옥	박덕양	김승곤	김영철	양기수	이정호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1(월)	2(화)	3(수)	4(목)	5(금)	6(토)	7(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차신득	안치원/김수연	이태복/최준호	정승신/최상기	양재용/김연태	이성진/이수경	하종철/김정자

예배담당 안내 (11/3-11/7)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11/3	수요 I	기도하는 이시관 (호산나 찬양대)	임현덕	조운수
11/3	수요 II	기약하소서 (실로암 찬양대)	이성수	최광순
11/5	금요집회	11교구/소프라노 김승희/트럼펫 이영훈/안수집사 찬양대	김용덕	김성관 목사
11/7	주일 I	(예배 전 찬양)	장종진	이 훈
11/7	주일 II	예루살렘 금강사 외씨이물린 김유정/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악장	이경준	이형수
11/7	주일 III	영호로신 주 예수님의 외씨이물린 김유정/할렐루야 찬양대 솔로리스트	이종대	이형수
11/7	주일 IV	이 세상 황홀하고 이 모든 이생이(아래 찬양대 솔로리스트)	하종철	이달옥
11/7	주일 V	놀라운 주님의 큰 은혜 되니(아래 찬양대 솔로리스트)	양재용	김단용
11/7	주일찬양	별변 찬양단/소양부 교사/찬양대/할렐루야 찬양대	김용덕	김철환

예배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국악동시찬양예배)	본 당
	V 오후 3:00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일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회오리찬	오전 11:00	오전 10:00
금요찬	오후 10:30	본당 앞출발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후 9:00 II 오후 11:00	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지 부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중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 1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세대	토, 오 4:0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부	오후 12:10	교육관 501호
장 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중 장 부	오후 12:15	할 려 회 홀
신촌 2기 성부	오후 12:15	교육관 204, 205호
사 람 파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예배다마루	오전 10:00(하루 오후 1:00)일	교육관 207호
타 학 아 부	오전 9:00 오후 2:00	교육관 102호
새가족양육부	1월 9일 9:15 II 오후 12:15	감리회홀, 베타나홀
출현이전/집	주건교구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부	주건교구	출현 복지관
국내외국인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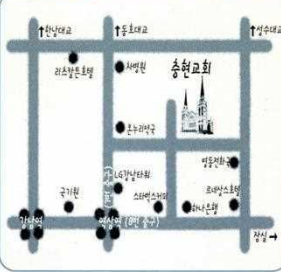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우리말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t. Lanke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10월 충현 기도의 향

1.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
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며, 말씀을 증
거하시 때마다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2. 영원 전부터 간구어 왔던 십자가 복음의 비
밀이 예배 때마다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복음을 확신하며
그 복음을 자랑하게 하소서.
3. 충현교회의 단기전교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
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소
서.
4.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남다른 삶 속에서 이
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5.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
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
서 자라게 하소서.
6. 후반기 주간성경공부, 교사양성부, 찬양대원
양성부, 전도대원훈련, 남녀구역장 양성훈련
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며
전하는 천국일꾼들이 많이 성장하게 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성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 성 관

■ 사무장

김의철	김은호	노영환	오진국	이병학
임철환	김모용	이 훈	남단수	정승호
김영진	문종구	조진태	김종구	최귀환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안종호
임무전	이갑재	전용홍	전종원	이정수
김단용	황형일	한금순	김영수	김환기
원용철	이형수	안동원	황의만	김구형
최준호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정태대
박광규	권병옥	조종환	배준식	김영남
이영호	최희준	노영환	박진희	정정진
신상수	고재승	장철환	김영은	이달옥
장철환	김승곤	함정철	윤석빈	정선민
안치원	김단용	김성관	김종수	임창식

■ 부목사

이종대	전현민	박민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훈	이국근	김교성	안창덕	나광영
정진호	김종대	고광환	위권각	김인환
장 훈	임현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이태복	정종진	양재용	이성진
조규호	최승기	이재영	이경준	이광수
김희철	윤수일	황진섭	정성영	
정현식	신동주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연
조옥자	강덕원	최문실	전준희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김정희	이복순	류진희
한성임				
■ 찬양대장	■ 찬양대장	■ 찬양대장	■ 찬양대장	■ 찬양대장
김정환	김정환	김정환	김정환	김정환
■ 찬양대장	■ 찬양대장	■ 찬양대장	■ 찬양대장	■ 찬양대장
김정환	김정환	김정환	김정환	김정환